소년

윤동주

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.
단풍잎 떨어져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
하늘이 펼쳐 있다.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
물감이 든다.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
파란 물감이 묻어난다.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. 손금에는
맑은 강물이 흐르고, 맑은 강물이 흐르고, 강물 속에는 사랑
처럼 슬픈 얼굴-아름다운 순이順伊의 얼굴이 어린다. 소년은
황홀히 눈을 감아본다.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
슬픈 얼굴-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.